

5·18, 아시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 '광주 정신' 전도사들

“오월광주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이정표”

⑥ 현지에서 만난 광주인권학교 수료자들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 민족들에게 귀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광주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도시로 우뚝 선 것이다.

특히 '광주 아시아인권학교'와 '국제인턴프로그램' 등은 '광주 정신'을 알리는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이 곳을 거쳐간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5월 학생 29주년을 맞아 5차례에 걸쳐 이들의 활동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광주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봤다. 본보 취재 결과 광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시아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 운영·관리시스템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7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문을 연 '광주 아시아 인권학교' 수료자는 20개국 107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12명 ▲인도네시아 11명 ▲인도 8명 ▲네팔 7명 ▲스리랑카 7명 ▲방글라데시 5명 ▲아프가니스탄 5명

등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에서 3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5월 학생의 전개과정과 의미 등을 보고 배운 뒤 자국으로 돌아가 '5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열악한 민주·인권 현실에 '광주 정신'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또 청년·여성·난민·노동 등 각 사회단체에서 일하며 소외된 시민과 소수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한편,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5월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처한 부조리한 사



버마(미얀마)국민운동총진위원회 회원 30여명은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2009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민교나임(47·Min Ko Naing)씨 등 2천100여명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88만천888명의 서명을 받아 UN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체계적 민주·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각국 인권단체들 연대 강화 나서주길”

회구조 속에서 희망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이들은 '아시아인권학교' 등 5·18 재단의 민주·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5월 학생이 명실공히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진 모델사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수료자들에게 대한 관리시스템 확보와 교육과정의 운영시스템 개선, 아시아 인권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한국)의 경우 다른 아시아 민주·인권단체들과의 연대가 부족해 단체간 정보공유와 협력체제 유지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광주가 아시아 국가의 민주·인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네팔 청년인권단체(Youth Action Nepal-YAN)'에서 만난 바와 나 바라(bhawana bhatt·여·25)씨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정치·종교적으로 인해 인권환경이 열악한 데다 경제적으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인권교육과 함께 경제적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 '2009 광주인권상' 대리 수상 아동 묘 민트씨

“버마 국민에 주는 희망 메시지”

"광주인권상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광주 시민이 버마 국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제10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현재 투옥중인 민교나임(47·Min Ko Naing)씨를 대신해 상을 받기 위해 17일 광주를 방문한 아동 묘 민트(34·Aung Myo Myint)씨는 "광주인권상은 2천

100여명의 양심수 석방과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모든 버마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4년 아동상 수주 여사여 이어 민교나임씨가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게 돼, 버마 민주화에 대한 광주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동 묘 민트씨는 "군사정권에 맞서 싸우다 6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교나임'은 그 이름만으로도 버마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며 "민교나임은 버마 민주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2005년 광주인권학교에 참가하기도 한 아동 묘 민트씨는 학생운동 경력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태국으로 망명했으며, 현재는 민교나임이 이끄는 전국버마연방학생연합에서 대외관계연구회 팀장을 맡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암 '모녀살해' 40대 처조카도 살해·암매장

야산서 시신 발굴

사실한 관계의 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40대 부인의 조카까지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암경찰은 17일 오전 11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야산에서 가출신고된 A양(17·고 2)의 시신을 찾아냈다. A양 시신은 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인 채 60cm 길이의 땅속에 매장돼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지난 12일 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하고 처조카 B(여·23)씨를 성폭행한 이모(43)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부인과 의붓딸을 살해하기 1주일 전인 지난 5일 A양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토대로 이날 시신을 찾아냈다. /영암=박재신기자 pjs@kwangju.co.kr

경찰은 지난 10일께 A양이 가출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고 모녀 살해사건의 연관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영암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 C(20)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4시간 뒤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사실한 관계인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또 부인을 살해한 직후 처조카 B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교도소에 복역했고, 이 기간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살았던 데 원한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박재신기자 pjs@kwangju.co.kr



'세입자 조작' 20억 대출 사기

광주지검, 4명 적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월급에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집 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심역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기단 일당 4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육진기)는 17일 금융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서모(37)씨와 금융기관 알선책 이모(47·전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차장)씨 등 44명을 적발, 이 가운데 서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싼값에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이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 알선책 이씨 등은 전직 금융기관 근무 경력 등을 앞세워 수차례에 걸쳐 대출정보를 알려주는 가짜 신분증 등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70만~1천500만원의 사채비를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흘간 단비 해갈 도움

광주·전남지역에 17일 오전까지 사흘간 단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비의 양은 지리산 피아골 96mm를 최고로 ▲장흥 55mm ▲고흥 54mm ▲보성 53.5mm ▲여수 44.5mm ▲광주 32mm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20~21일 또 한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k@

건축허가 불만 크레인 끌고 시청 난입

○여수경찰은 17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시청사로 크레인을 몰고 가 시위를 벌인 김모(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여수시가 불허한데 앙심을 품고 크레인을 몰고 여수시청사로 난입, 시청 현관 앞에 주차한 뒤 크레인에서 시청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채 기를 60t를 주변에 뿌리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

○경찰은 김씨가 6m 길이의 크레인 불대를 회전시켜 경찰의 접근을 막고, 갖고 있던 가위로 자해 위협을 하는 등 2시간여 동안 난동을 피워 설득했으나 불응하자 허벅지에 전자총을 쏘아 가가스로 김씨를 검거. /여수=박규기기자 ykpark@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남성 헤어 기능장비 대산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품대 최신택품. SBS·KBC 「사람세상 방영」. 초슬림!! 각판 50. 6월 15일까지 만원~.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